

<대공황 시대>

- 경제 대공황의 발생과 경과

경제 대공황 이전,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며 유례없는 산업 생산과 번영을 맞이한 미국은 풍요의 상징이었다. 새로운 산업의 등장과 제품의 대량 생산으로 소비 산업사회가 형성되었으며, 일부 주에서는 유전이 발견되기도 하면서 국민총생산이 40%나 증가하는 등 이들의 생활 수준은 급속도로 향상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풍요와 번영은 오래가지 못하였고, 이내 몇 가지 상황들이 사회 전반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제품이 대량생산되는 한편, 노동자들의 임금은 동결되었고, 곧 소비의 감소로 이어졌다. 그러자 재고가 증가한 공장은 제품을 감산하며 노동자들을 해고하였다. 그렇게 실업률이 점차 증가했고, 월스트리트의 주가가 폭락하며 파산하는 은행과 기업이 늘어남에 따라 파산하는 개인 역시 증가하였다. 심상치 않은 경제의 흐름 속에서 경제 대공황의 시발점이라 할 수 있는 '검은 목요일'과 '검은 화요일'에 도래했다. 주식 시장 개장과 함께 주가가 폭락한 검은 목요일에는 우량주라 불리던 US 철강과 GM까지 매물이 쏟아졌다. 모건의 노력으로 '검은 목요일'은 어찌저찌 넘어가는 듯했으나, 결정적인 '검은 화요일'이 다가왔다. 이날 하루에만 당시 미국에 유통되고 있던 화폐의 2배에 해당하는 약 100억 달러의 주식이 증발해버렸고, 그렇게 경제 대공황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경제 대공황의 원인은 크게 3가지로 추릴 수 있다. 첫째, 몇몇 기간 산업에 과도하게 의존한 경제의 다양성 부족, 둘째, 기업부터 국민에 이르기까지 무분별한 주식 투기의 경제 신용구조 빈약, 셋째, 심화된 빈부격차에 의한 구매력 분배의 불균형이다.

- 뉴딜 정책과 평가

경제 대공황이 시작되며, 미국 사회는 그야말로 초토화되었다. 파산하는 기업과 은행이 점점 더 늘어났으며, 국민총생산은 반토막이 났다. 후버 대통령의 낙관적인 태도는 경제 대공황을 심화시켰고, 이에 루즈벨트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정부는 경제 대공황을 수습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한다. 이것이 그 유명한 '뉴딜 정책'이다. 1, 2차에 걸쳐 진행된 뉴딜 정책은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경제 구조와 관행을 개혁하며 대공황으로 침체된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경제 정책이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테네시 계곡 공사와 구제사업 기관 등이 있다. 그렇게 미국은 점점 경제를 회복하던 중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경제 대공황을 극복하게 된다.

이러한 뉴딜 정책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논리적인 이론보다는 유익한 결과를 창출하는 것에 집중했던 루즈벨트와 참모들은 체계화된 이론을 바탕으로 일관성있게 정책을 추진하지 않았다. 이러한 임기응변식 실행으로 종종 서로 모순되는 정책들이 발생하기도 했다. 또한, 뉴딜의 세부 내용 중 일부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 이 모든 걸 차치하고 가장 큰 특징은 자본주의에 사회주의적 요소를 가미한 혼합 경제의 양상을 띄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루즈벨트는 공화당 보수주의자들로부터 사회주의자라는 지탄을 받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대공황을 극복하고 미국의 건실함을 지켜낸 루즈벨트는 오늘날, 무려 12년 간 연임을 한 존경받는 지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금주법 시대>

- 1920년대 미국의 사회상, 금주법 시행, 밀주 제조, 갱단의 등장

제 1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경제는 비약적으로 성장하였다. 부자가 된 젊은이들이 곳곳에서 나타났고, 이들은 곧 사치와 향락에 빠져들었다. 음주와 음악을 즐기고 (이때, 재즈가 성행하여 재즈 시대라고 하기도 함) 화려한 파티를 즐겼으며 그에 따른 성 개방 풍조와 환락과 향락이 성행하였다. 청교도적 윤리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행태는 못마땅했고, 이들은 이런 행태의 원인을 음주로 지목했다.

곧, 금주법이 순식간에 제정되었고 미국은 금주법 시대를 맞이한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금주법의 이면을 파고든 사람들은 밀주를 제작하고 밀매하며 그렇게 또 부를 쌓아갔다. 이렇게 부를 쌓아가던 사람들 중에는 갱단도 포함되었다. 이들은 '마피아'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으며, '마피아'라는 이름답게 이탈리아 출신의 이민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그 유명한 알 카포네도 금주법 시대에 이름을 알린 인물이다.) 주로 시카고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마피아들은 밀주와 밀매를 단속하던 경찰을 속이고 은행업과 공조

하기도 했다. 정보는 이들을 그냥 두고만 볼 수 없기에 단속에 나서며 이들을 잡기 위해 노력했다. 시내 한복판에서 총격전도 벌이고, 목재 운반 차량으로 위장한 이들을 잡기도 했지만, 단속 인원의 부족, 밀수 밀매자가 고안해 낸 여러 장치들을 파악하지 못하였기에 단속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했다. 이어 밀주를 제작하고 판매하는 술집이 성행하게 되었으며, 마피아들끼리 경쟁을 하기도 했다. 무려 21년 동안 이어진 금주법 시대는 1933년에 수정헌법 제 21조가 제정되며 막을 내리게 된다.

<냉전시대>

- 1950년대 미국 사회

제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1950년대까지, 미국은 경제 대공황을 극복하고 또다시 풍요의 시대를 맞이했다. 저물가, 고용 안정, 고성장, 고소득의 살기 좋은 환경의 모든 조건을 갖추었고, 경제 대공황 이전과는 달리 중산층이 형성되었다. 교외의 집이 저렴했기에 누구나 교외에 집을 마련할 수 있었고, 평균 자동차 보유대수가 2대였으며, TV, 냉장고가 보급되는 등 시장 규모가 확대되었다. 오늘날의 신용카드, 할부판매의 개념이 등장했던 때이기도 하다.

- 미국 VS 소비에트 연방의 대립과 매카시 열풍

제 2차 세계대전을 기점으로 전 세계는 냉전 시대를 맞이한다. 이는 자본주의로 대립되는 미국과 사회주의로 대립되는 소비에트 연방의 대립으로 특징지을 수 있고, 유럽 대륙에서 '팽창주의 VS 마셜플랜'으로 표현할 수 있다.

소비에트 연방의 스탈린은 동유럽 국가들을 공산화시키는 팽창주의를 감행하고 있었는데, 미국은 이러한 소비에트 연방의 모습을 보고 '도미노 이론'을 내세우며 유럽 전체가 공산주의로 바뀌어 소련의 힘이 커질 것을 우려하였다. 이에 트루먼과 마셜은 서유럽 국가들에게 자본을 대주어 이들이 빠르게 전쟁의 폐허에서 복구하는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마셜플랜'이다.

이렇게 이념 대결로 시작한 이들의 대립은 점차 군사적 대결의 양상을 띄게 된다. 이러한 양상은 크게 2가지 사건으로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는 1962년에 일어난 쿠바 미사일 위기로, 미국의 첩보기에 쿠바에 건설 중이던 소련의 미사일 기지의 사진과 이를 위해 부품을 조달 중이던 선박의 사진이 포착되면서 시작된 위기이다. 두 번째는 군사동맹이다. 미국은 유럽과 아프리카 국가들을 결합한 군사 동맹 'NATO'를, 소련은 동유럽 국가들을 결합한 군사 동맹 'WTO'를 세운다. (이들은 1991년 소비에트 연방의 해체로 유명 무실해진다.)

국가 간의 대립은 미국 사회의 전반에도 그 분위기가 흘러간다. 이는 '매카시즘'으로 대표될 수 있는데, 매카시즘은 1950년에서 1954년까지 미국 전역을 휩쓴 반공산주의 광풍이다. 국무성 안에 250명의 공산주의자들이 존재한다는 매카시의 발언으로 시작된 광풍은 현대판 마녀사냥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이러한 마녀사냥은 할리우드를 겨냥했는데, 이로 인해 많은 극작가, 배우, 감독들이 할리우드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된다. 해당 블랙리스트에는 그 유명한 작가 트럼보, 배우 찰리 채플린이 포함된다. 4년간 군인, 예술계, 정치계 등에서 무자비하게 자행된 공산주의자 색출은 한 방송기자에 의해 증거없는 매도 행위임이 드러나면서 그 막을 내린다.

<여성 평등권 운동>

- 근대 이후 여성의 사회적 지위

1792년에 여성이 남성의 성적 대상, 양육 유모, 가정부가 되는 것을 비판하고, 여성의 독자적이고 독립적인 삶의 방식을 주장한 <여성의 권리 옹호>라는 최초의 페미니즘 저서가 출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인권은 전혀 더 나아진 점이 없었고 이는 1800년대 중반의 경제 변화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1800년대 경제 변화는 여성들이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공장이 문을 열면서 집 밖에서 수행되는 유급 노동만이 '실제 작업'으로 인정받게 되었기 때문인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성은 그저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았다. 같은 노동량, 심지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남성의 임금보다 낮았으며, 신체적, 성적 학대를 당하기도 했다. 이런 극단적인 경우는 노예 해방 운동에서도 마주할 수 있었다.

노예 제도 폐지 운동가로 알려진 노예 반대 운동가들 다수는 여성이 전국적인 문제에 대해 공적인 행동에 참여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기도 하였다.

- 20세기 초 여성 참정권 운동 및 여권 신장의 역사

몇몇 사람들에 의한 여권 신장 운동에도 불구하고, 20세기가 되어서도 여성들은 투표를 할 수도, 재산을 소유할 수도 없었고, 심지어 남편들은 여성에게 합법적인 매질이 가능했다. 결국, 여성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얻기 위한 평등권 운동을 펼치기 시작했고, 그 대표적인 예시가 '참정권 운동'이다. 여성들이 참정권을 얻는 과정은 굉장히 험난했다. 참정권을 주장하는 여성들을 모두 체포하기도 했고, 이들을 직장해서 해고시키기도 했으며, 집에서 쫓겨나는 이들도 있었다. 영국에서는 '에밀리 데이비슨'이라는 여성은 경마대회에서 국왕 조지 5세 소유의 말 앞에 뛰어들어 참정권을 요구하며 사망하기도 했다. (영국의 여성 참정권 운동가들 '서프러제트'라고 일컬음) 반면, 미국에서는 그 유명한 소설 '작은 아씨들'이 출간되었다. 작가는 빅토리아 시대의 여성상을 강요하던 시대에 둘째 '조'를 통해 참정권을 주장하며 여권 신장을 위해 노력한 자신의 모습을 투영하였다. 이 소설은 미국 문학에서의 페미니즘의 태동을 알렸고, 여권 신장의 신호탄이 되기도 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여성의 참정권을 위해 노력한 결과, 1918년 영국, 1920년 미국의 여성들은 참정권을 얻을 수 있었다.

<흑인 인권 운동>

- 흑인 노예 제도의 역사

흑인 노예 제도의 역사는 콜럼버스의 서인도제도 발견으로 아메리카 대륙이 발견되며 시작한다.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유럽은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의 문명을 파괴하며 이들을 식민지배하였고, 이후에는 아프리카에서 흑인 노예를 데려오며 2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들을 노예 취급한다. 아프리카에서의 노예 수급은 그 엄청난 규모로 인해 '대서양 삼각 무역'에 등장하기도 한다. 이는 아메리카 대륙에서 플랜테이션 농업이 이뤄지며 설탕, 담배, 면화 등을 유럽으로 보내고, 유럽은 아프리카에 유리구슬, 면직물, 총기 등을 보내며, 아프리카에는 아메리카에 흑인 노예를 조달한 무역을 두고 일컫는 말이다. 영국은 지리적 이점으로 흑인 노예의 집결지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시간이 흐르면서, 흑인 노예에 대한 비판이 생겨났고, '톰 아저씨의 오두막'과 같은 문학을 통한 비판이 등장한다. 결국, 흑인 노예 제도 폐지가 원인이 되어 미국에서는 남북 전쟁이 일어났고, 북군의 승리로 흑인 노예들은 해방될 수 있었다.

- 흑인 인권 운동의 역사와 마틴 루터 킹 목사 등 흑인 인권 운동가

미국에서 흑인 노예제도가 법적으로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남부 주에서는 공공장소에서 흑백 분리를 강조한 법인 '짐 크로우 법'을 제정하여 흑인에 대한 차별을 이어간다. 흑인은 물 마시는 곳, 수영장, 화장실, 버스 좌석에서조차 백인과 분리되어야 했는데, 투표권에서도 차별이 이어졌다. 문맹 테스트, 재산 소유, 세금 납부 등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투표권을 얻을 수 있었다. 이런 행태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던 흑인들은 인권 운동을 펼치기 시작한다. 피부색에 따라 학생들의 교육을 분리하거나 차별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나는 일이라는 판결을 받아낸 '브라운 VS 토피카 교육위원회 사건', 퇴근길의 흑인 여성이 버스의 백인 전용 좌석에 앉아 체포된 것을 시작으로 진행되어 버스 좌석에서의 흑인 차별을 없앤 '몽고메리 버스 승차 거부 운동', 식당에서 백인 전용 좌석에 흑인 대학생들이 앉으면서 시작되어 식당에서의 흑인 차별을 없앤 'Sit-in 운동' 등의 운동은 흑인 인권을 대표하는 운동들로 남아있다. 또한, 흑인 인권 운동가의 대표적인 인물로 '마틴 루터 킹'과 '말콤 X'가 있다. 말콤 X는 비폭력주의자였던 '마틴 루터 킹'과 대척점에 있던 인물로, 폭력 수단을 이용한 과격한 인권 운동을 주장하였다. 반면, '마틴 루터 킹'은 앞서 언급한 비폭력주의자로 유명한 연설인 'I have a dream'이 있다. 이는 워싱턴 D.C.에서 흑인들의 일자리와 시민권 주장을 위해 흑인 지도자들이 모여 진행한 행진에서 펼친 연설이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차별받는 것이 당연했던 흑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었고, 해당 행진을 계기로 공공장소에서의 흑백 분리와 교육, 고용의 차별을 금지하는 시민권 법이 제정되며 이 행진은 흑인 시민권 운동을 상징하게 된다.

<기업, 사회, 그리고 개인>

- 맥도날드화

맥도날드화는 일상의 일들이 점점 더 많이 패스트푸드점의 원리에 지배받게 되는 과정을 말한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4가지 특성을 가진다. '효율성'은 배부른 상태로 만드는 가장 편한 방법으로 절차의 간소화, 제품의 단순화를 말한다. '계산 가능성'은 양적 측면을 강조한 것으로, 많은 양을 신속하게 보급하는 것에 초점을 둔 것이다. '예측 가능성'은 제품과 서비스가 어디서나 동일한 것을 나타내며, 예측 가능한 제품을 제공하고 종업원도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통제'는 고객과 노동자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며, 이렇나 특성을 더욱 굳건히 하기 위해 인간 기술을 무인 기술로 대체하기도 한다. 맥도날드 이외의 기업을 예시로 들자면 스타벅스가 있다.

- 코드화, 영토화 및 진정한 자유와 개인의 삶

코드화, 영토화라는 개념은 철학자이자 사회학자인 '질 들뢰즈'에 의해 등장하였다. 들뢰즈는 삶에 대해 두 종류의 길을 제시한다. '영토화, 코드화된 길'은 현대인의 가장 일반적인 삶으로, 정해진 틀, 규범, 사회 관습 등을 이르는 문화라는 울가미 속에서 통제된 삶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 '탈주와 유목민의 길'은 욕망에 따라 일상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다니는 유목민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질 들뢰즈가 주장하는 개념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영화로 '트루먼 쇼'가 있다. 특히, 이 영화에서 '카메라'는 들뢰즈의 개념을 가장 잘 응축하고 있다. 카메라는 검열과 규범에서 벗어나는 유목민만이 자유로운 삶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말하며, 나아가 우리의 삶을 관찰하는 카메라는 제도, 규칙, 원칙, 법, 도덕적 양심, 종교적 계율 등으로서 진정한 삶을 추구하는 것을 통제하고 방해하는 요소이다. 즉, 해당 영화는 트루먼처럼 통제 받는 잘못된 삶을 의식하고 세트장 내의 가짜 삶이 아닌, 진짜 삶을 살 수 있는 용기를 내고 실천하라는 메시지를 관객에게 전달한다. 에리히 프롬의 '자유로부터의 도피'는 현대 문명의 획일성과 인간 소외 현상을 비판하며 자유와 인간의 존재 양상에 대한 반성을 촉구함과 동시에 독립적이고 자발적인 적극적인 의미의 자유를 주장한다. 해당 개념 역시 영화 '트루먼 쇼'를 통해 잘 설명할 수 있다. 트루먼의 세상인 'Sea Heaven'은 모든 시나리오들이 통제와 계획 아래 이뤄지는 적당한 구속을 의미한다. 이와 반대로 트루먼의 '탈출'은 진정한 자유를 말하는 것으로 에리히 프롬의 '자유로부터의 도피'를 설명할 수 있다.